

# 경전·선지식 대신할 명쾌한 답변

## ‘체계불학’으로 쓴 ‘불교 초보탈출 100문 100답’

“임진왜란 때 승병을 조직해 참전했던 서산 대사는 살생으로 인한 과보를 받았을까?” “불자가 아닌 사람이 불교의 계율을 어겨도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까?”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초기 선승들은 좌선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일까?”

“부처님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실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다”이다.

위의 질문들은 경전이나 조사어록, 불교학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리송한 것들이다 보니 답변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 이란 부제를 단 <불교 초보 탈출 100문 100답>(불광출판사)은 이런 난해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김 교수의 홈페이지(www.kimsch.net)에 올라온 질문들은 그야말로



김성철 교수

다양하고 기발하다. 3년 6개월여 동안 불교 초심자부터 불교전공 학생, 교수, 스님 등 각계각층의 네티즌이 김 교수에게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질문자들의 예봉을 피하지 않고 난해한 질문들을 마치 화두 풀듯이 경전에 근거해 차분하게 풀이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불교 입문자나 학자, 수행자 모두에게 지침이 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채식도 살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생명” [華嚴]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생명이라 할 게 없다’ [般若]는 무차별적인 조망은 ‘생명’과 ‘무생명’을 가르는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무생명을 가르고, 그에 의거하여 살생하지 말라는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철저한 속제(俗諦)의 일이고 분별적 활동입니다. 불교윤리적으로 ‘분별’할 때 식물은 불교적 의미의 생명, 즉 중생이 아니기에 식물을 먹거나 해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김 교수의 답변은 ‘수행’, ‘교리’, ‘생로병사와 윤리’ 그리고 ‘불교와 이웃종교’ 등 불교교리를 오늘의 신행(信行)과 결부시켜 현실감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김 교수가 평소 주장해 온 ‘체계불학(體系佛學: Systematic Buddhology)’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의 소산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체계불학이란 “현대의 문헌학적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고 불전의 가르침을 유기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수미일관한 하나의 신행체로 구성해 내는 불교학”이다.

초기불교에서 대·소승, 밀교와 정토, 화엄과 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불교사상을 신행과 결부시켜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김 교수의 열정이 돋보이는 이 책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뜻하는 남관부(南管夫) 장례회사에서 10년간 남관부로 일한 <남관부 일기>의 저자 아오키 신문(青木新門)은 “남관부는 ‘시체 처리사’가 아니라, 죽은 이가 안심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 ‘죽음’, 삶의 온전한 의미 반영된 거울

## 자신 돌아보는 명상 실천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죽음과 영원을 위해 변화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또는 남겨진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려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붐’이다. 죽음의 참된 의미를 들여다 보는 책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판미동)의 저자인 티베트의 소갈 린포체는 삶과 죽음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이며, ‘죽음은 삶의 온전한 의미가 반영된 거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 실천서로 손색이 없다. 김성우 기자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소갈 린포체·오진탁 판미동 1만7000원

# 날마다 시신 마주하며 되묻는 일기

## ‘깨달음’, 태연하게 사는 것

“날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있자면 죽은 사람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죽음의 문 저편에는 빛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의 화장을 해 주고 영원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의사를 입회(承諾) 그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사람이란 뜻하는 남관부(南管夫) 장례회사에서 10년간 남관부로 일한 <남관부 일기>의 저자 아오키 신문(青木新門)은 “남관부는 ‘시체 처리사’가 아니라, 죽은 이가 안심

하고 사후 세계로 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날마다 시신을 마주하면서 생과 사를 진지하게 되묻는 저자는 남관부 일을 계속해오던 중 알지 못하던 편안한 삶의 시심(詩心)을 깨치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죽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잘못이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태연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말을 체득하게 된다. 김성우 기자



남관부 일기 아오키 신문·조양욱 문학세계사 1만원

# “마음을 풀어놓고 관하기만 하면 된다”

## 7년 무문관 수행 중국의 만행 스님

중국에서 7년에 걸쳐 3번의 폐관(閉關: 무문관) 정진을 단행한 스님이 출현했다.

1993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3번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만행 스님(동화사 주지)·(사진은 그간의 구도기를 쓴 책 <마음의 달(心中月)> 대유학당을 한국어로 펴냈다.

책에 따르면, 만행 스님은 무문관 수행을 할 때 하루 18시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6시간도 6자진언 태극권 등을 하며 잠을 자지 않았으며, 혹 졸음이 올 때도 눈을 뜨고 앉았다 한다. 좌선할 때는 가부좌를 하고 글의 천장에 기둥을 매고 동아줄을 늘어뜨린 뒤 목을 감음으로써 혹여라도 자신도 모르게 눕게 되는 것을 방지했던 것이다.



두 번의 폐관 정진을 마친 후 스님은 티베트에 가서 탐공 선사를 만나 밀교 기원을 얻었다. 그 뒤 스님은 다시 6주 해능 선사가 수행했던 동굴로 와서 3년을 더 폐관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행 스님은 혹독한 무문관 수행을 이겨냈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권하지 않

고 오히려 단박 깨침을 강조한다. 스님은 책에서 “뉘를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하근기의 사람일”이라며 “선종에서 ‘돈오(頓悟)했다’는 것은 중근기의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상근기인들은 돈오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또 무슨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가? 도(道)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놓고 고요히 안정한 뒤에 관(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던 만행 스님, 늘 깨어있으면서 비취 보는 ‘각조(覺照)’를 강조했다.

마음의 달 1. 2 | 대유학당 | 만행 지음 | 각권 1만원 김성우 기자

# 토굴수행 중 첫 시집

## 지도스님 ‘초담화’

“더할도 덜 할도 없이 처처시시 근기대로 부처주니 부처요. 좋고 나쁨 없이 보살피고 보살피주니 보살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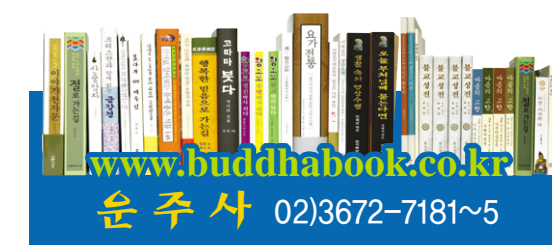
토굴수행 중인 지도스님(사진)이 첫 시집 <초담화>(모아드림)를 펴냈다. 모두 111편의 신작시가 수록된 이 시집에는 “한 자로서 더불어 함께하고자 이 시집을 엮게 되었다”는 탁비스님의 출가 전의 방황과 갈등, 출가(천태종 구인사) 후의 수행생활과 출가 후의 고행, 만행의 여정이 담겨져 있다. 한편, 지도스님의 첫 시집과 사진집 발간을 축하하는 ‘탁비지도 제1회 개인전’이 9월 5-6일 구미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초담화 | 지도스님 | 모아드림 | 7000원 김성우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5	법륜스님의 죽은죽실	법륜	정토
6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김영사
7	자비산 스님의 뒷날리는 수행 이야기	천천, 현현	불광출판사
8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9	프랑스 수도원 고행	항적	금시조
10	상한이 세상을 다스려야 내가 안습는다	성연	마음의 숲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선실 / 선문연승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선실 / 선문연승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